

부츠 컷(Boots-cut) 청바지 착용실태 및 맞춤새에 관한 연구 -20~30대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최진 · 도월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Actual Wearing Conditions and Fit Preferences of Boots-cut Jean -Focus on Adult Women in Their 20's and 30's-

Jin Choi · Wol-Hee Do[†]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6. 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how to improving wearing sensation and fit of boots-cut jean through analysis of the actual wearing conditions and dissatisfaction. In order to compile the information about dissatisfaction with the appropriateness of the fit of boots-cut jean,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50 females(between the ages of 20 and 39) living in Gwang-ju,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2.0 program. Also, 6 blue jean manufactures were investigated, the study method was a interview about company present status, sizing system and pattern of boots-cut jean.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In wearing conditions, the 20's(51.6%) to 30's(69.1%) is found the best preferred jean is boots-cut style. The reason why consumers prefer boots-cut jeans with wearing fit does to seem charming bodyline of the adult female. 2. Body type groups by drop was classified with the usual waist, the thick waist, the thin waist. The differences among age groups, body type and so on were compared using the chi-square test. Dissatisfaction of the fit of the thick waist and the thin waist was higher than the usual waist. 3. Research on the production sizing system of 6 blue jean brands showed the total sizing system of each manufacture were 3~9, they were reflected the sizing system of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K 0051). Theref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for boots-cut jeans pattern and sizing system for Korean consumer's body shape.

Key words: Boots-cut, Blue jean, Wearing condition, Fit, Dissatisfaction; 부츠 컷, 청바지, 착용실태, 맞춤새, 불만족도

I. 서 론

청바지는 최근에 와서 다양한 실루엣의 형태로 등장하면서 여성미를 한층 끌어올리는 패션아이템이 되었다. 청바지도 다른 의복과 마찬가지로 인체를 기준으로 하여 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이 조화되어,

착용과 동시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김연정, 2003). 타이트 핏(Tight-fit) 의복아이템의 경우 착용자가 느끼는 착용감과 치수 적합성 등이 루즈 핏(Loose-fit) 의복아이템보다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타이트 핏 의복아이템의 패턴 설계 시에는 해당 신체부위에 대한 체형분석이 필요하고 더불어 정확한 신체치수가 반영되어야 한다(도월희, 2003). 특히 청바지는 닳트(Dart)가 없으며, 데님(Denim)의 두툼고, 신축성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

[†]Corresponding author

E-mail: whdo@chonnam.ac.kr

것들이 대부분으로서 여유량이 적고 높은 맞음새가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의복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경험에 의해 자신의 체형에 맞는 브랜드를 찾기도 하고, 착용한 후에 의류치수의 적합성을 판단하기도 한다(오설영, 천중숙, 2002). 이러한 맞음새는 소비자에게 그 브랜드를 선호하게 하고, 맞음새에 대한 개념은 착용감뿐 아니라,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는 기준이 됨으로 청바지 판매가 다른 아이템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면서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김언정, 2003).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정숙, 성수광(2003)은 시판되는 청바지 제품에 허리부위와 넙다리부위의 여유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명은(2001)은 청바지의 밑위길이와 넙다리둘레, 무릎둘레에 따른 기능성 및 심미성을 평가하였다. 정선희(2003)는 청바지의 기본 원형을 제시하였으며, 김언정(2003)은 청바지 형태에 따른 소비자 착용실태를 파악하고 착의평가를 하였다. 임지영(2006)은 10대에서 50대까지 각 연령별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50대까지 주 2~3회 청바지를 착용한다고 조사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년 남성들에게까지도 청바지 인기가 확산되는 추세("데님바지", 2007)로 청바지는 연령, 성별을 제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착용되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청바지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착용실태와 착의평가 중심이었으며, 청바지 패턴설계와 기능적인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으나 체형을 고려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타이트 핏 디자인의 청바지 맞음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여성들이 선호하는 실루엣을 강조하는 형태로, 여유분이 매우 작은 부츠 컷 청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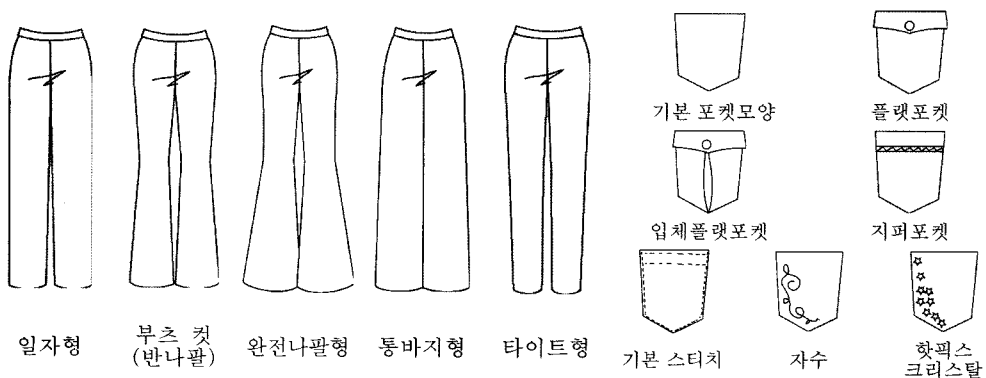
지를 20~30대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착용실태와 세부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하고 착용감과 맞음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하드롭을 이용한 집단의 세부적인 맞음새 분석과 생산업체조사에서 나타난 사이즈체계와 패턴설계의 실태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소비자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내용

예비조사는 2006년 11월 6일~7일까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30명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12월 7일~2007년 3월까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 여성 총 2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기본 신체치수는 연구자가 직접 측정하였다. 청바지 착용현황과 맞음새, 만족도에 관한 문헌연구와 예비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인구 통계학적 문항 및 신체치수에 관련된 일반적 사항 4문항, 청바지의 구입 및 착용현황에 관련된 7문항, 부츠 컷 구매결정 시 고려되어지는 기준과 수선사항에 관련된 5문항, 부츠 컷 착용 시 불만족도와 선호사항에 관련된 8문항으로 총 24문항을 구성하였다. 부분별 선호 디자인에 관한 문항에서는 예시된 세부 디자인은 예비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5위 안에 들어있는 청바지 브랜드 매장의 디자인을 분석하여 제시한 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제시된 디자인의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청바지 명칭별 디자인 형태 및 포켓모양, 장식별 형태

2) 자료분석

배부한 설문지 중 200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50부를 제외한 최종 15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치를 얻어 전반적인 착용 현황을 알아보고, χ^2 -검증을 실시하여 20대와 30대 연령별 선호도, 실제 계측치에 의한 체형분류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생산업체 조사

1) 조사대상 및 방법

생산 업체조사는 2006년 12월 청바지 관련 논문, 패션잡지,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청바지 브랜드 가운데 본 연구대상과 동일한 타겟의 업체를 선정하여 예비조사하고 2007년 1월~4월에 총 6개 업체를 방문하여, 실무 담당자와 직접 인터뷰하면서 설문조사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대상과 동일한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업체를 예비조사한 후, 청바지의 생산비율이 20% 이상인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무담당자와 인터뷰하면서 업체현황, 사이즈체계, 부츠 컷 청바지 원형, 부츠 컷 청바지 소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설문조사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및 신체치수

<표 1>은 응답자의 연령분포 및 일반적 사항이며,

연령별 하반신 신체치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청바지 구입 시 신체치수 항목으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가 표기되어 있다. 체중과 허리둘레, 하드롭은 연령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 항목들은 하드롭에 의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요한 자료역할을 하게 된다. 연령별 청바지 치수분포는 <표 3>과 같으며, 20대는 27(38.8%), 28(20.4), 30대는 27(34.2%), 28(21.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3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에서는 사이즈 27에 대응하는 치수를 주력해서 생산해야 하며 치수전개에 있어 소비자의 신체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n=150)

문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24세	52	34.7
	25~29세	43	28.7
	30~34세	31	20.7
	35~39세	24	16.0
결혼여부	미혼	106	70.7
	기혼	44	29.3
출산경험	유	37	24.7
	무	113	75.3

<표 3> 연령별 청바지 치수 분포 (단위: 명(%))

문항	연령	20대(n=95)		30대(n=55)		χ^2 -value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바지치수 표기	25	2	4.1	0	0	2.081
	26	7	14.3	7	18.4	
	27	19	38.8	13	34.2	
	28	10	20.4	8	21.1	
	29	6	12.2	5	13.2	
	30 이상	5	10.2	5	13.2	

<표 2> 연령별 신체 치수 비교

(n=150)

문항	20대(n=95)		30대(n=55)		t-value
	Mean	SD	Mean	SD	
신장	162.44	4.07	162.02	4.47	0.593
체중	52.09	6.61	55.12	7.33	-2.600*
엉덩이둘레	90.39	4.18	90.97	5.25	-0.695
허리둘레	68.63	4.64	71.86	6.68	-3.164**
하드롭	21.76	4.64	19.11	5.52	3.137**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N.S.=Not Significant(이하 모든 표에서 적용)

치수 분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청바지 구매 및 보유상태 조사

<표 4>는 소비자들의 청바지 착용 및 구입횟수를 연령대별로 조사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청바지 일주일간 착용횟수는 20대, 30대 각각 3회 이상이 81.1%, 54.5%로 착용율이 높으며, 연중 구매횟수는 20대 52.6%, 30대 41.8%가 3벌 이상 구매하는 것으로 보아, 청바지는 성인 여성의 의복착용 시 중요한 아이템임을 알 수 있다. 구입장소를 다중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내었다.

선호하는 청바지 형태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결과

<표 4> 착용 및 구매횟수에 따른 연령대별 비교 (단위: 명(%))

문항	연령	연령대		χ ² -value
		20대(n=95)	30대(n=55)	
착용 횟수	1~2회	17(17.9)	25(45.5)	13.216***
	3~4회	52(54.7)	19(34.5)	
	5회 이상	26(27.4)	11(20.0)	
연중 구매횟수	1~2벌	45(47.4)	32(58.2)	2.125
	3~4벌	37(38.9)	18(32.7)	
	5~6벌	12(12.6)	5(9.1)	
	7벌 이상	1(1.1)	0(0)	

<표 5> 연령대별 청바지 구입장소 (단위: 명(%))

문항	연령	20대(n=95)	30대(n=55)
의류브랜드매장		34(22.7)	22(14.7)
청바지전문매장		32(22.0)	22(14.7)
인터넷		4(4.2)	7(4.7)
할인마트		13(8.7)	5(3.3)
보 세		39(26.0)	17(11.3)
기 타		6(4.0)	1(0.7)

<표 6> 선호하는 청바지 형태의 연령대별 비교 (단위: 명(%))

문항	연령	연령대		χ ² -value
		20대(n=95)	30대(n=55)	
일자형		28(29.5)	7(12.7)	7.790
부츠 컷		49(51.6)	38(69.1)	
완전나팔형		4(4.2)	4(7.3)	
통바지형		4(4.2)	3(5.5)	
타이트형		10(10.5)	3(5.5)	

는 20~30대 모두에서 부츠 컷(51.6%, 69.1%), 일자형(29.5%, 12.7%), 순으로 나타나 성인 여성이 부츠 컷 청바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츠 컷 청바지를 주로 착용하는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20대는 ‘다리가 길어보여서’(26.4%), ‘코디하기 쉬워서’(21.8%), ‘몸에 맞아 편해서’(19.5%) 순으로 나타났고, 30대는 ‘나에게 잘 어울려서’(20.7%), ‘다리가 길어보여서’(14.9%), ‘몸에 맞아 편해서’(14.9%)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인 임지영(2006)의 청바지를 착용하는 이유가 ‘편하다’, ‘활동적이다’라는 것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 여성의 바디라인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착용 시 몸에 꼭 맞아 체형을 잡아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표 6, 7).

3) 부츠 컷 청바지 구매 요인에 관한 조사결과

부츠 컷 청바지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에 대해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20대의 경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로 디자인(26.5%), 컬러(14.3%), 착용감(16.3%) 순으로 부츠 컷 청바지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착용감(42.1%), 허리선의 위치(13.2%), 컬러(13.2%)로 부츠 컷 청바지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는 30대보다 미적 기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 임지영(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20대, 30대 소비자들이 청바지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유행, 디자인, 가격을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청바지가 아닌 타이트 핏인 부츠 컷 청바지의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임으로 미적기능

<표 7> 연령대별 부츠 컷 청바지 착용이유 (단위: 명(%))

부츠 컷 착용이유	20대(n=49)	30대(n=38)
몸에 맞아 편해서	17(19.5)	13(14.9)
넓어서 활동하기 편해서	3(3.4)	6(6.9)
유행하는 형태이므로	1(1.1)	6(6.9)
유행을 타지 않는 형태이므로	11(12.6)	10(11.5)
여성적이어서	7(8.0)	2(2.3)
코디하기 쉬워서	19(21.8)	13(14.9)
다리가 길어보여서	23(26.4)	13(14.9)
체형이 드러나지 않아서	10(11.5)	8(9.2)
나에게 잘 어울려서	7(8.0)	18(20.7)
입고 벗기 편해서	3(3.4)	6(6.9)
기 타	3(3.4)	1(1.1)

<표 8> 연령별 부츠 컷 청바지 구매 시 순위별 평가기준

(단위: 명(%))

문항	연령	20대 (n=49)		30대 (n=38)		χ^2 -value
		순위	명(%)	순위	명(%)	
중요도1	1	디자인	13(26.5)	착용감	16(42.1)	22.856*
	2	착용감	11(22.4)	디자인	9(23.7)	
	3	실루엣	5(10.2)	맞음새	5(13.2)	
중요도2	1	컬러	7(14.3)	허리선의 위치	5(13.2)	19.818
	2	사이즈	6(12.2)	내구성	5(13.2)	
	3	디자인, 실루엣	5(10.2)	디자인	5(13.2)	
중요도3	1	착용감	8(16.3)	컬러	5(13.2)	11.471
	2	소재	6(12.2)	디자인	5(13.2)	
	3	컬러, 디자인	5(10.2)	소재	4(10.5)	

과 착용감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츠 컷 청바지 부위별 수선에 대한 결과를 <표 9>에 나타내었다. 수선경험에 의한 응답으로 20대는 '있다(65.3%)'로 대부분의 부위별 수선을 하고 있으며, 바지길이(59.6%), 바지통(15.4%), 허리부위(13.5%), 넓다리부위(9.6%), 엉덩이부위(7.7%)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의 수선경험에 의한 응답은 '있다(52.6%)'로 높게 나타났으며, 바지길이(34.6%), 바지통(3.8%), 밀위길이(1.9%)로 나타났다. 이는 20대가 부츠 컷 청바지의 디자인, 실루엣 등의 미적기능을 중요시 생각함으로 수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바지길이의 수선이 20~30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바지통 수선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부츠 컷의 실루엣이 달라져 만족도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치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부츠 컷 청바지 디자인 선호도 및 불만족도 조사결과 부츠 컷 청바지에 대한 세부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

<표 9> 연령대별 부츠 컷 청바지 수선에 관한 조사결과 (단위: 명(%))

문항	연령	20대(n=49)	30대(n=38)
		명(%)	명(%)
수선 경험	있 다	32(65.3)	20(52.6)
	없 다	17(34.7)	18(47.4)
수선 부위	허리부위	7(13.5)	0(0)
	엉덩이부위	4(7.7)	0(0)
	넓다리부위	5(9.6)	0(0)
	바지통	8(15.4)	2(3.8)
	바지길이	31(59.6)	18(34.6)
밀위길이	0(0)	1(1.9)	

한 결과는 <표 10>으로, 전체적으로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허리위치에 관한 선행연구로 이명은(2001)은 소비자들이 일자형 청바지의 밀위길이 23cm를 선호하나, 밀위길이 27cm가 동작적합성이 가장 쾌적하다고 하였으며, 임지영(2006)의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 소비자들이 전반적인 청바지의 밀위길이 19cm보다 밀위길이 23cm를 선호한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 밀위길이 선호도는 20대는 짧은 밀위 21cm(59.2%), 중간 밀위 23cm(36.7%), 30대는 중간 밀위 23cm(65.8%), 짧은 밀위 21cm(31.6%)로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보다 선호하는 밀위길이가 더 짧은 것은, 20대의 경우 부츠 컷 청바지의 밀위길이가 짧을수록 하체가 길고 날씬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30대는 착용감에 있어 불편함을 느낌으로 중간 밀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츠 컷 착용 시 소비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신발의 굽이 연령별 차이 없이 20대, 30대 모두 5cm(49.0%, 44.7%), 7cm(44.9%, 39.5%)를 선호하며, 바지길이에 대한 선호도는 발끝까지 오는 길이(79.6%, 89.5%)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생산업체에서 부츠 컷 청바지 패턴의 바지길이 설정 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츠 컷 청바지 착용 시 전반적인 불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부츠 컷 청바지는 타이트 핏이기 때문에 실루엣과 외관에 관한 항목의 불만족도보다 맞춤새에 관한 항목의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라벨에 표시된 치수와 신체 치수가 잘 맞는가', '허리위치', '허리부분의 맞춤새'의 항목에서 불만족도가 각각 18.3%, 17.2%, 18.4%로 나타난 것은, 업체에서 사이즈를 설정할 때 편차만 달리

<표 10> 부츠 컷 청바지 세부 디자인 선호도

(단위: 명(%))

문항		연령	20대(n=49)	30대(n=38)	χ^2 -value
소재	면100%		10(20.4)	10(26.3)	2.652
	면스판		36(73.5)	28(73.7)	
	기타		3(6.1)	0(0)	
허리위치	긴 밀위(27cm)		2(4.1)	0(0)	9.957*
	중간 밀위(23cm)		18(36.7)	25(65.8)	
	짧은 밀위(21cm)		29(59.2)	12(31.6)	
	매우 짧은 밀위(18cm)		0(0)	1(2.6)	
포켓모양	기본 모양		30(61.2)	15(39.5)	4.974
	플랫포켓		6(12.2)	8(21.1)	
	입체플랫포켓		12(24.5)	12(31.6)	
	지퍼포켓		1(2.0)	3(7.9)	
포켓장식	기본 스티치장식		33(67.3)	26(68.4)	3.522
	자수장식		5(10.2)	7(18.4)	
	핫픽스 크리스탈장식		8(16.3)	8(13.2)	
	기타		3(6.1)	0(0)	
신발형태	운동화		3(6.1)	8(21.1)	5.664
	등근구두		24(49.0)	13(34.2)	
	뽀족한구두		21(42.9)	17(44.7)	
	기타		1(2.0)	0(0)	
신발굽높이	3cm		3(6.1)	6(15.8)	2.163
	5cm		24(49.0)	17(44.7)	
	7cm		22(44.9)	15(39.5)	
바지길이	7부길이		0(0)	1(2.6)	3.781
	9부길이		0(0)	0(0)	
	발목길이		10(20.4)	3(7.9)	
	발끝까지 오는 길이		39(79.6)	34(89.5)	
바지통	정면	21.5cm	2(4.1)	0(0)	2.922
		23cm	34(69.4)	23(60.5)	
		24cm	13(26.5)	15(39.5)	
	측면	21.5cm	1(2.0)	1(2.6)	0.376
		23cm	34(69.4)	24(63.2)	
		24cm	14(28.6)	13(34.2)	

하여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패턴을 설계함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표 10>의 부츠 컷 청바지 세부 디자인 선호도에서 청바지의 밀위길이가 짧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밀위길이가 활동 시 맞음새'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지길이'의 불만족도가 나타난 이유는 부츠 컷 청바지 수선부위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인체측정치 만족도 비교

<표 12>는 소비자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분포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한 허리사이즈에서 다양한 엉덩이둘레의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리사이즈 67cm일 경우에 출현률이 2% 이상인 구간의 엉덩이 둘레가 82cm~94cm까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바지 패턴설계 시 생산비율과 기준사이즈로 참고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치수에 따른 라벨치수와의 불만족도

<표 11> 부츠 컷 청바지 착용 불만족도

(단위: 명(%))

구분/요인	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적인 실루엣		0(0)	1(1.1)	26(29.9)	51(58.6)	9(10.3)
전체적인 맞춤새		0(0)	5(5.7)	38(43.7)	39(44.8)	5(5.7)
군주름 없이 몸에 잘 맞는가		0(0)	7(8.0)	42(48.3)	32(36.8)	6(6.9)
라벨에 표시된 치수와 신체치수가 잘 맞는가		1(1.1)	15(17.2)	42(48.3)	24(27.6)	5(5.7)
허리위치		0(0)	15(17.2)	25(28.7)	44(50.6)	3(3.4)
허리부분의 맞춤새		0(0)	16(18.4)	36(41.4)	31(35.6)	4(4.6)
엉덩이부분의 맞춤새		0(0)	7(8.0)	34(39.1)	42(48.3)	4(4.6)
허벅지부분의 맞춤새		1(1.1)	11(12.6)	35(40.2)	33(37.9)	7(8.0)
밀위길이의 활동 시 맞춤새		1(1.1)	14(16.1)	30(34.5)	36(41.4)	6(6.9)
밀위길이 외관의 맞춤새		1(1.1)	10(11.5)	37(42.5)	32(36.8)	7(8.0)
무릎부분의 맞춤새		0(0)	8(9.2)	32(36.8)	42(48.3)	5(5.7)
바지통의 활동 시 넓이		0(0)	8(9.2)	32(36.8)	39(44.8)	8(9.2)
바지통 외관의 넓이		1(1.1)	10(11.5)	25(28.7)	42(48.3)	9(10.3)
바지길이		3(3.4)	16(18.4)	30(34.5)	33(37.9)	5(5.7)
뒤 포켓 위치		0(0)	3(3.4)	36(41.4)	42(48.3)	6(6.9)
뒤 포켓 모양		0(0)	3(3.4)	39(44.8)	35(40.2)	10(11.5)

<표 12>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 교차분석

(단위: 명(%))

W \ H	척도								
	82	85	88	91	94	97	100	103	전체
61	0(0)	2(2.3)	0(0)	0(0)	0(0)	0(0)	0(0)	0(0)	2(2.3)
64	0(0)	1(1.1)	2(2.3)	5(5.7)	0(0)	0(0)	0(0)	0(0)	8(9.1)
67	7(8.0)	5(5.7)	8(9.2)	13(14.9)	2(2.3)	1(1.1)	0(0)	0(0)	36(41.4)
70	0(0)	5(5.7)	3(3.4)	2(2.3)	3(3.4)	2(2.3)	0(0)	0(0)	15(17.2)
73	2(2.3)	0(0)	3(3.4)	2(2.3)	1(1.1)	3(3.4)	0(0)	0(0)	11(12.6)
76	0(0)	0(0)	0(0)	0(0)	0(0)	2(2.3)	0(0)	0(0)	2(2.3)
79	0(0)	0(0)	1(1.1)	1(1.1)	0(0)	2(2.3)	0(0)	0(0)	4(4.6)
82	0(0)	0(0)	0(0)	2(2.2)	0(0)	1(1.1)	0(0)	0(0)	3(3.4)
85	0(0)	0(0)	0(0)	1(1.1)	1(1.1)	0(0)	2(2.3)	0(0)	4(4.6)
88	0(0)	0(0)	0(0)	0(0)	0(0)	1(1.1)	0(0)	1(1.1)	2(2.3)
전체	9(10.3)	13(14.9)	17(19.5)	26(29.9)	7(8.7)	12(13.8)	2(2.3)	1(1.1)	87(100)

*음영부분은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빈도가 높은 허리둘레범위에서 엉덩이 분포를 나타냄.

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드롭을 사용한 허리 집단별 연령분포율이 한국산업규격(KS)의 연령별 분포율과 유사하게 20대(49.0%), 30대(44.7%) 모두 '보통허리'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표 13>과 같다.

허리 집단별 불만족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보통 허리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같은 불만족 항목에서 굵은 허리, 가는 허리와 유사하

<표 13> 허리 집단별 연령분포

(단위: 명(%))

측정치 분류	연령		χ^2 -value
	20대(n=49)	30대(n=38)	
가는 허리(n=33)	20(40.8)	13(34.2)	2.014
보통 허리(n=41)	24(49.0)	17(44.7)	
굵은 허리(n=13)	5(10.2)	8(21.1)	

게 응답되었다. 그 이유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신체치수의 하드롭이 가는 허리에 속한 것을 업체조사결과

<표 14> 허리 집단별 불만족도 차이

(단위: 명(%))

항 목	척 도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적인 실루엣	가느 허리(n=33)	0(0)	0(0)	10(30.3)	20(60.6)	3(9.1)
	보통 허리(n=41)	0(0)	1(2.4)	11(26.8)	24(58.5)	5(12.2)
	굵은 허리(n=13)	0(0)	0(0)	5(38.5)	7(53.8)	1(7.7)
라벨치수와 신체치수가 잘 맞는가	가느 허리(n=33)	1(3.0)	9(27.3)	16(48.5)	7(21.2)	0(0)
	보통 허리(n=41)	0(0)	5(12.2)	19(46.3)	13(31.7)	4(9.8)
	굵은 허리(n=13)	0(0)	1(7.7)	7(53.8)	4(30.8)	1(7.7)
군주름 없이 몸에 잘 맞는가	가느 허리(n=33)	0(0)	3(9.1)	48(54.5)	10(30.3)	2(6.1)
	보통 허리(n=41)	0(0)	3(7.3)	17(41.5)	19(46.3)	2(4.9)
	굵은 허리(n=13)	0(0)	1(7.7)	7(53.8)	3(23.1)	2(15.4)
전체적인 맞춤새	가느 허리(n=33)	0(0)	2(6.1)	18(54.5)	12(36.4)	1(3.0)
	보통 허리(n=41)	0(0)	2(4.9)	12(29.3)	23(56.1)	4(9.8)
	굵은 허리(n=13)	0(0)	1(7.7)	8(61.5)	4(30.8)	0(0)
허리위치	가느 허리(n=33)	0(0)	6(18.2)	10(30.3)	16(48.5)	1(3.0)
	보통 허리(n=41)	0(0)	7(17.1)	11(26.8)	22(53.7)	1(2.4)
	굵은 허리(n=13)	0(0)	2(15.4)	4(30.8)	6(46.2)	1(7.7)
허리부분의 맞춤새	가느 허리(n=33)	0(0)	7(21.2)	17(51.5)	8(24.2)	1(3.0)
	보통 허리(n=41)	0(0)	9(22.0)	14(34.1)	16(39.0)	2(4.9)
	굵은 허리(n=13)	0(0)	0(0)	5(38.5)	7(53.8)	1(7.7)
영덩이부분의 맞춤새	가느 허리(n=33)	0(0)	3(9.1)	16(48.5)	13(39.4)	1(3.0)
	보통 허리(n=41)	0(0)	3(7.3)	13(31.7)	23(56.1)	2(4.9)
	굵은 허리(n=13)	0(0)	9(7.7)	5(38.5)	6(46.2)	1(7.7)
허벅지부분의 맞춤새	가느 허리(n=33)	0(0)	0(0)	7(21.2)	14(42.4)	9(27.3)
	보통 허리(n=41)	0(0)	1(2.4)	2(4.9)	15(36.6)	19(46.3)
	굵은 허리(n=13)	0(0)	0(0)	2(15.4)	6(46.2)	5(38.5)
밑위길이 맞춤새 (활동 시)	가느 허리(n=33)	0(0)	7(21.2)	15(45.5)	9(27.3)	2(6.1)
	보통 허리(n=41)	0(0)	6(14.6)	11(26.8)	22(53.7)	2(4.9)
	굵은 허리(n=13)	1(7.7)	1(7.7)	4(30.8)	5(38.5)	2(15.4)
밑위길이의 맞춤새 (외관상)	가느 허리(n=33)	0(0)	5(15.2)	17(51.5)	9(27.3)	2(6.1)
	보통 허리(n=41)	0(0)	3(7.3)	17(41.5)	16(39.0)	5(12.2)
	굵은 허리(n=13)	1(7.7)	2(15.4)	3(23.1)	7(53.8)	0(0)
무릎부분의 맞춤새	가느 허리(n=33)	0(0)	4(12.1)	12(36.4)	16(48.5)	1(3.0)
	보통 허리(n=41)	0(0)	2(4.9)	16(39.0)	19(46.3)	4(9.8)
	굵은 허리(n=13)	0(0)	2(15.4)	4(30.8)	7(53.8)	0(0)
바지통의 활동 시 넓이	가느 허리(n=33)	0(0)	4(12.1)	12(36.4)	15(45.5)	2(6.1)
	보통 허리(n=41)	0(0)	4(9.8)	14(34.1)	19(46.3)	4(9.8)
	굵은 허리(n=13)	0(0)	0(0)	6(46.2)	5(38.5)	2(15.4)
바지통 외관의 넓이	가느 허리(n=33)	0(0)	5(15.2)	10(30.3)	17(51.5)	1(3.0)
	보통 허리(n=41)	1(2.4)	3(7.3)	12(29.3)	18(43.9)	7(17.1)
	굵은 허리(n=13)	0(0)	2(15.4)	3(23.1)	7(53.8)	1(7.7)
바지길이	가느 허리(n=33)	2(6.1)	6(18.2)	13(39.4)	10(30.3)	2(6.1)
	보통 허리(n=41)	1(2.4)	6(14.6)	12(29.3)	19(46.3)	3(7.3)
	굵은 허리(n=13)	0(0)	4(30.8)	5(38.5)	4(30.8)	0(0)
뒤 포켓 모양	가느 허리(n=33)	0(0)	1(3.0)	17(51.5)	12(36.4)	3(9.1)
	보통 허리(n=41)	0(0)	0(0)	17(41.5)	18(43.9)	6(14.6)
	굵은 허리(n=13)	0(0)	2(15.4)	5(38.5)	5(38.5)	1(7.7)
뒤 포켓 위치	가느 허리(n=33)	0(0)	1(3.0)	15(45.5)	16(48.5)	1(3.0)
	보통 허리(n=41)	0(0)	0(0)	17(41.5)	19(46.3)	5(12.2)
	굵은 허리(n=13)	0(0)	2(15.4)	4(30.8)	7(53.8)	0(0)

분석되었다. ‘라벨치수와 신체치수가 잘 맞는가’의 항목은 <표 12>의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교차분석표와 같이 동일한 허리둘레에서 다양한 엉덩이둘레의 분포율을 보임으로 라벨치수와와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바지길이’에 대한 불만족도가 허리 집단과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바지길이의 수선의 빈도가 높은 것과 관련되며, 바지길이 설정 시 참고해야할 부분이다. 허리 집단별 교차분석을 통한 분석결과에서 맞춤새에 관한 항목의 불만족도가 허리 집단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하드롭만을 이용한 분류의 한계가 있다. 피트니스가 강조되는 형태인 부츠 컷 청바지의 패턴설계 전에 성인 여성의 체

형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반신의 성인 여성의 체형을 분석하기 위해 부츠 컷 패턴설계 시 필요한 인체항목을 추출하고, 패턴을 설계하면 맞춤새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2. 생산업체 실태분석

1) 업체현황

생산업체의 전반적인 현황을 다음의 <표 15>에 나타내었다. 6개 업체 모두 평면제도법을 이용하여 패턴 제작 하고 있으며, CAD System을 사용하여 패턴을 제작하는 곳을 D업체 한 곳이었으며, 다른 업체들은 주로

<표 15> 생산업체 전반적인 현황

항 목		업체명	A	B	C	D	E	F
메인타겟 (서브타겟)			20~29세 (30대 이상)	18~28세 (30대 초반)	18~23세 (20대 이상)	18~29세 (20대 이상)	25~39세 (18~34세)	25~34세 (10~50대)
패턴 현황	패턴제작법		평 면	평 면	평 면	평 면	평 면	평 면
	Pattern CAD 사용 프로그램		YUKA 그레이딩	-	YUKA 그레이딩	YUKA/Geber 패턴, 그레이딩	Asahikasei 그레이딩 디자인변형	Lectra 그레이딩 마카, 출력
소 재			면/스판텍스혼방	면100%, 면/스판텍스혼방	면/스판텍스혼방	면100%	면100%	면100%

<표 16> 업체별 사이즈체계

(단위: cm)

항 목		업체명	A	B	C	D	E	F
생산 치수	기준사이즈		27	26	26	26	64	26
	생산호수		26~30	26~30	26~30	26~30	64~76	26~36
	생산개수		5	5	5	5	3	8
신체 치수	허리둘레		64.8	64.8	64	67	26	66
	엉덩이둘레		90.2	90.2	90.2	90.2	36	90
제품 치수	*안솔기선		81.3 (-)	82 (-)	82 (-)	82 (-)	**102 (-)	78.8 (-)
	허리둘레		74.9 (2.5)	74 (2.5)	75 (2.5)	78 (2.5)	79 (5)	70 (2.5)
	엉덩이둘레		91.4 (5.0)	89 (2.5)	91 (2.5)	90 (2.5)	92 (5)	88 (2.5)
	밑위길이		34.2 (0.65)	50.5 (0.65)	52 (0.5)	49 (-)	19.5/32 (1.2)	23/34.5 (0.5)
	넘다리너비		26.6 (1.25)	26.5 (1.2)	26 (1.5)	26.5 (2.5)	25.5 (2)	26.5 (1.2)
	무릎너비		19 (0.65)	19 (0.9)	20 (1.5)	18.5 (2.5)	18.25 (1.2)	18.5 (1.0)
	바지부리		24 (0.65)	22.5 (0.65)	20.7 (1.5)	22.5 (2.5)	23 (1.2)	21 (1.0)

*안 솔기선 = in seam / **E 업체는 바깥솔기선(out seam)을 사용함.

그레이딩 또는 이미 제작되어진 패턴을 디자인 변경 시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청바지 아이템 중 부츠 컷 청바지 생산비율은 A업체는 70~80%, B업체는 30%, D업체는 30~35%, E업체는 40~50%, F업체는 15~20% 정도 차지한다고 응답하여, 디자인에 따른 청바지 아이템 중 단일 품목으로 높은 생산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사이즈체계

청바지 호칭과 누드치수는 아이템에 상관없이 동일하며, 누드치수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사용하며 업체별 사이즈체계는 <표 16>과 같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치 소재일 경우 업체별 제품치수 신축률의 기준이 다름으로 동일한 조건의 사이즈체계의 조사를 위해 면 100%인 부츠 컷 청바지 제품치수를 조사하였다. 청바지 생산호수의 개수는 A~D업체는 허리사이즈 26~30까지 1inch 간격으로 5개이며, E업체는 허리사이즈 64cm로 6cm편차로 3개이며, F업체는 26~30까지 1inch 간격으로, 32~36까지 2inch 간격으로 총 8개이다. 업체별 사이즈체계는 한국산업규격(KS K 0051)을 기준으로, 매년 판매량과 유행을 분석하여 브랜드 타겟에 맞는 소비층의 사이즈 체계를 설정한다고 하였다. B와 D업체는 인체치수조사의 데이터를 참고하지만 업체의 기본 사이즈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E업체는 경쟁회사의 것을 참고하며 판매량과 직결하여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이즈체계를 수정한다고 응답하였다. 업체별 기본사이즈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평균 사이즈를 참고하여 자사 브랜드 컨셉과 타겟에 맞춰 설정하여 패턴원형을 설계하였다. 각 업체별 사이즈 편차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편차를 3cm로 하는 한국산업규격을 참고로 하여 설정하였다. 생산호수의 편차가 큰 E업체를 제외하고는 기본 항목간의 업체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밑위길리와 바지부리의 치수에 차이가 나타나 브랜드별 추구하는 디자인에 의한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지길리는 교육용 패턴제도에 사용하는 바지길이를 설정하는 항목인 허리둘레선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를 사용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도월희, 2003)에서 피트니스를 필요로 하는 타이트 핏 슬랙스의 경우 다리부위 길이에 대한 치수적합성이 극도로 요구되므로 안 솔기길이를 필요로 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업체에서는 부츠 컷 청바지 길이를 설정하는 항목으로 안 솔기선(in seam)을 사용하였으며, E

업체는 바깥솔기선(out seam)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업체 모두에서 바지솔기선의 편차를 두지 않고, 획일화된 하나의 사이즈로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부츠 컷 청바지 길이 수선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바지통의 수선으로 이어져 바지길이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보다 바지길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이즈별로 사이즈에 적합한 바지길이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부츠 컷 청바지 패턴현황

부츠 컷 청바지 패턴에서 원형에 관한 조사결과를 <표 17>과 같다. D업체를 제외하고 기본 원형을 가지고 있고, A, B, E, F업체는 부츠 컷 청바지 원형도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였던 부츠 컷 청바지의 원형을 보유해놓음으로써 디자인 변형 시 원형을 이용하면 시간절약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D업체의 경우는 전년도 매출량을 참고하여 높은 매출을 보인 패턴을 원형으로 삼아 그 시점에 맞는 패턴으로 수정함으로 따로 원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청바지 패턴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6가지 항목에 관해 업체의 중요도 순위를 <그림 2>로 나타냈다. 이는 업체별 부츠 컷 청바지 패턴설계할 때 고려하는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허리에서 밑위부위까지의 착용감을 높이고 심미성을 우수하게하기 위해서는 ‘뒤 중심의 기울기’가 중요한 설계요소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허리둘레의 다양한 분포와 ‘허리위치’, ‘허리부분의 맞음새’의 항목에서 불만족도가 나타났다. 또한 ‘앞·뒤 밑위장선’, ‘앞·뒤 밑위길이’의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소비자 분석결과에서 ‘밑위길이의 활동 시 맞음새’의 항목에서 불만족도가 나타났다. 부츠 컷 청바지 패턴 치수에 체형을 고려한 사이즈 체계의 필요 여부에 대한 설문에는 타이트 핏인 부츠 컷 청바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국내의 시장규모로 인해 실제적으

<표 17> 청바지 원형에 관한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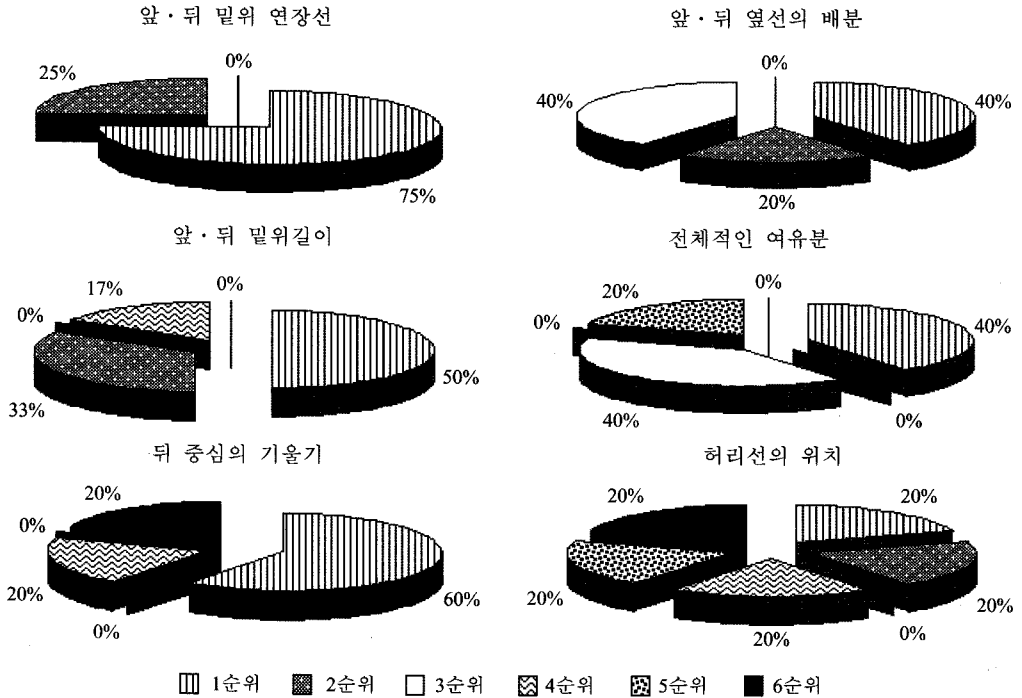
항 목		업체명					
		A	B	C	D	E	F
원형 보유	청바지	유	유	유	무	유	유
	부츠 컷	유	유	무	무	유	유

로는 패턴에 체형을 고려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공통적으로 청바지 전문 브랜드들이 등장하여 청바지의 고급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가 더 높아짐에 따라 맞춤새와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형을 반영한 패턴설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커지고 있는 청바지 시장의 규모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구체적인 체형분석과 사이즈표기 및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츠 컷 청바지 패턴이 다른 청바지의 패턴과 차별화를 두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A업체는 뒤 중심의 기울기와 옆선의 설정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B와 D업체의 경우는 부츠 컷 청바지의 주된 목적이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것이므로 무릎선 설정과, 착용 시 허리, 엉덩이, 넓

다리 부위가 타이트 핏을 보임으로 착용감을 우수하게 하는 여유량 설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4) 부츠 컷 청바지 소재 관련 조사결과

<표 18>은 업체별 부츠 컷 청바지 소재 및 패턴의 수축률에 관한 조사결과로 업체별 타이트 핏인 부츠 컷 청바지의 맞춤새와 착용감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상에 의한 패턴의 수축률은 B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미리 수축률을 주어 패턴을 설계하여 샘플 청바지를 제작하고, 위상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패턴을 수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상마다 수축률이 조금씩 다르므로 기본적인 수축률을 주고, 샘플 테스트를 거쳐 패턴설계에 적용시키는 것



<그림 2> 업체별 부츠 컷 청바지 패턴설계 시 고려하는 요소

<표 18> 부츠 컷 청바지 소재 및 패턴의 수축률

항 목	업체명	A	B	C	D	E	F
소 재*		스트레치 비스트레치	스트레치	비스트레치	비스트레치	비스트레치	스트레치
패턴의 수축률		3%	-	2~2.5cm	3~5%	3%	3%

*스트레치-면/스판덱스혼방, 비스트레치-면100%

으로 보아 워싱에 따른 수축률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부츠 컷 청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체형에 따른 착용감과 맞춤새를 분석 하였고, 청바지의 생산비율이 30% 이상인 업체를 방문하여 사이즈체계와 부츠 컷 청바지 패턴과 관련하여 인터뷰 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결과 청바지 일주일간 착용횟수는 20대, 30대 각각 '3회 이상'이 81.1%, 54.5%, 연중 구매횟수는 20대 52.6%, 30대 41.8%가 3벌 이상 구매하는 것으로 보아, 청바지는 성인 여성의 의복착용 시 중요한 아이템임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청바지 형태에 대한 연령별 결과는 20대, 30대 각각 51.6%, 69.1%로 부츠 컷 청바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츠 컷 청바지를 주로 착용하는 이유로 '다리가 길어보여서', '몸에 맞아 편해서', '나에게 잘 어울려서', '코디하기 쉬워서'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부츠 컷 청바지가 성인 여성의 바디라인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착용 시 몸에 꼭 맞아 체형을 잡아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츠 컷 청바지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에 대해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로 20대는 30대보다 미적기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츠 컷 청바지의 선호하는 밑위길이는 20대는 짧은 밑위(21cm), 중간 밑위(23cm), 30대는 중간 밑위(23cm), 짧은 밑위(21cm)로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츠 컷 착용 시 선호하는 신발의 굽높이가 5cm, 7cm이며, 바지길이에 대한 선호도는 발끝까지 오는 길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생산업체에서 부츠 컷 청바지 패턴의 바지길이 설정 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교차분석을 통해 동일한 허리 사이즈에서 다양한 엉덩이둘레의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하드롭을 사용하여 가는 허리, 보통 허리, 굵은 허리의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보통 허리'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허리 집단별 교차분석을 통한 분석결과에서 맞춤새에 관한 항목들이 허리집단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피팅성이 강조되는 형태인 부츠 컷 청바지의 패턴설계 전에 성인 여성의 체형

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업체조사결과, 전체 청바지 아이템 중 부츠 컷 청바지 생산비율이 최소 15%, 최대 80%까지 차지한다고 응답하여, 디자인에 따른 청바지 아이템 중 단일품목으로 높은 생산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업체별 사이즈체계는 한국산업규격을 기준으로, 매년 판매량과 유행을 분석하여 브랜드 타겟에 맞는 소비층의 사이즈체계를 설정한다고 하였다. 생산업체에서는 바지길이를 설정하는 항목으로 안 솔기선과 바깥솔기선을 사용하였다. 조사업체 모두에서 바지솔기선의 편차를 두지 않고, 획일화된 하나의 사이즈로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부츠 컷 청바지 길이의 수선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5. 부츠 컷 청바지 패턴에 관한 업체조사에서 4개 업체에서는 부츠 컷 청바지 원형도 보유하고 있었다. 부츠 컷 청바지 패턴설계 시 고려하는 요소로 '앞 뒤 밀위연장선', '뒤 중심의 기울기'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의 착용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허리둘레의 다양한 분포와 '허리부분의 맞춤새'의 항목에서 불만족도가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설문조사결과 20, 30대 성인 여성의 부츠 컷의 착용율이 다른 형태의 청바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업체 조사결과에서 사이즈 편차는 여성 성인복 치수에 나온 편차와 유사하였지만, 이는 사이즈편차와 체형을 고려한 패턴설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성인 여성의 하반신 체형분석을 토대로 체형의 변화를 반영한 패턴과 치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츠 컷 착용 시 다리가 길어 날씬해 보이면서 몸에 잘 맞아 착용감이 불편하지 않은 의복압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원연. (2005). 여성용 슬랙스 패턴설계를 위한 연구-로 웨리스트 슬랙스 패턴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언정. (2003). 청바지 형태에 따른 소비자 착용실태 및 착용평가.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윤희. (2003). 타이트 핏(Tight-Fit) 슬랙스 패턴구성을 위한 성인 남성의 하반신 체형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559-570.
- 박재경, 임원자. (1994) 슬랙스 원형의 밑위 앞뒤길이 여유

- 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5), 602-614.
- 오설영, 천종숙. (2002). 한국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체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50-61.
- 이명은. (2001). 청바지 패턴설계에 따른 기능성 및 심미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숙, 성수광 (2003). 진 슬랙스 구입 및 수선에 관한 실태 조사-18~23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2), 153-158.
- 임지영. (2006).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청바지 착용실태 조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4), 413-419.
- 정선희. (2003). 청바지 패턴 및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표준협회. (2004). 한국산업규격 성인 여성복의 치수 KS K 0051. 서울: 한국표준협회.
- 30·40대 아저씨들 데님바지에 꽂혔다. (2007, 2. 20).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07, 3. 2, 자료출처 <http://news.mk.co.kr/newsRead>